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 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으로 -

김유정
이화여자대학교

<국문 요약>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남한으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점차 활성화되었다. 선행연구 결과, 중국이나 남한에서 재결합하는 가족들이 동반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통계의 부재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아직 어렵지만 앞으로도 먼저 남한에 정착한 가족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재결합하는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증가로 인해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과 서비스에 대해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결합한 가족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을 포함한 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으로 재결합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남한 적응에 도움을 주

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은 남한 정착이라는 선택적인 도전을 받아들이며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 있던 가족 구성원과 재결합한다. 가족 구성원은 재결합 후 새로운 가족구조와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적응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가족으로서 협력하며 긍정적인 시각과 신뢰를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레질리언스 관점을 토대로 한 북한이탈주민 재결합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이 실행된다면, 이들의 레질리언스를 강화시켜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남한 정착을 보다 원활하게 도와줄 것이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 남한적응과 정착

I. 문제 제기

남한으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¹⁾의 수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1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2만 명 시대가 도래하였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www.dongposarang.or.kr, 2011/04/14 검색). 1999년까지는 성인 남성 단독 입국이 두드러져 남성 입국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점차 여성과 가족동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과 사회적 계층이 다양해졌다. 1990년대 중

1) 2005년 통일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준다고 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새터민’으로 변경했다가 2009년 5월 행정상의 일관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포하였다. 최근 이주민의 한 집단으로 인식되면서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하여 ‘북한이주민’이란 단어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적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고자 한다.

반 이전에는 가족을 동반한 이주가 거의 불가능했으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족이 함께 남한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이주 후에 입국한 잔류가족이 가족 구성원과 합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한인영·이소래, 2002; 이금순 외 2003; 윤인진 2009; 이순형 외 2009). 최근에는 먼저 탈북하여 정착한 사람들과 전문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새로운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탈북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자녀들에게 더욱 나은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부모가 먼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후 남아있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이금순 외 2003; 이순형 외 2007, 2009; 윤인진 외 2007; 윤인진 2009).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이미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따라 이동하는 시차적인 탈북이 증가하고 있어 남한으로의 이주가 제도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급증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착지원 정책과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북한이나 제3국에 남아 있는 잔류가족 구성원과 재결합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자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가족단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점차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들은 동반입국한 가족에 대한 것이 다수로서 남한 입국 후 가족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김영수 2000; 박미석·이종남, 1999; 윤인진, 2005 2006; 이금순 외 2003; 이기영 1999; 이순형 외 2007; 장혜경, 2008; 전우택 외 2003) 가족의 관계와 역할 변화(윤인진 외 2007; 이기영·성향숙 2001) 북한이탈주민 가족 내의 독특한 문화(안연진 2002)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금순 2006; 장혜경·김영란 2000) 부부 중심 가족의 유형과 적응(김영희 2006; 이민영 2004) 가족구조 특성에 따른 적응(진미정 외 2007)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이와 같이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오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관심과 전반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남한에서 가족을 이루는 북한이탈주민은 가족원들이 입국을 동시에 한 경우(21.0%)보다 남한에 온 후 가족이 재결합된 경우(26.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금순 외 2003). 또한 2006년 이후 통계자료의 부재로 인해 명확한 수를 알기는 어렵지만, 먼저 입국한 가족들의 지원 증가로 동시에 입국하는 가족보다는 순차 입국하여 재결합하는 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의 가족 재결합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가족을 재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옥자·김현경 2007),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진미정 외 2009), 재결합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구성된 가족(이순형 외 2009)에 대한 연구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연구들이다. 그러므로 순차적으로 가족 재결합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시차적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잔류 가족이 재결합한 경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닌 서구의 경우에도 이미 이주민과 난민 가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이 이주하면서 가족 분리와 재결합을 경험에 대한 연구(Huyck & Fields 2005; Jones & Sogren 2004; Mirsky, L. 1997; Orellana et al. 2001; Pottinger, A. M. 2005, 2008; Rodriguez-Nogues L. 1983; Sciarra 1999; Smith et al. 2004; Suarez-Orozco et al. 2002)는 최근에서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이주로 인해 가족 분리와 재결합을 경험한 가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순차적으로 이주하여 재결합하는 가족은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한 가족보다 더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ottinger, 2005, 2008; Sciarra, 1999; Smith et al., 2004; Suarez-Orozco et al. 2002). 따라서 대량 이민의 역사가 짧고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한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재결합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준비과정으로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질리언스 관점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미 극단적인 탈출과 도피과정을 거쳐 남한에서 적응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삶은 레질리언스를 발견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처한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미래의 도전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현황과 재결합한 가족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현황

국경을 통한 탈북이 가능해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중국 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에서 북한의 잔류 가족들과 합류한 후 남한으로 동반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였다(윤인진

1999, 이순형 외 2009). 또한 중국이나 제 3국에서의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생존과 자기보호를 위해 원치 않는 대상과의 동거생활 혹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이순형 외 2009).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선족이나 제 3국의 국민과 결혼한 경우는 국제결혼으로 인정되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국제결혼을 한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초청하여 남한에서 합류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윤여상 2001; 이순형 외 2009).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가족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단위 동시 입국과 시차적 입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동반 입국자수는 1994~1999년 사이에는 62가족이었으나, 2002년 이후 가족단위 입국이 913가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동반 입국자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과 2006년에 감소하였다. 가족 단위의 입국감소는 정착지원금 등의 문제로 시차를 두고 남한에 입국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서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장혜경 2008). 2006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연도별 입국자 가족 및 가구원 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입국자 가족 및 가구원 수

(단위: 명)

구분	계	가 족		단독	가족의 비율(%)
		가족 수	가구원		
2002	1,139	160	409	730	35.9
2003	1,281	190	464	817	36.2
2004	1,894	274	668	1,226	35.3
2005	1,383	168	380	1,003	27.5
2006.6	854	121	267	587	31.3

자료: 통일부 내부자료, 장혜경(2008) '새터민 지원정책과 방안'에서 재인용

시차적 입국은 새로운 유형의 이산가족 형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가족의 일부가 북한에 남아 있거나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 중국 체류 시 조선족이나 한족과 동거 또는 혼인한 경우, 남한 입국 후 북한이나 제3국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을 데려오거나 남한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경우 등으로 복잡하며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국경에 인접한 함경도 출신지역이며 30~40대의 여성들로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 특히 자녀를 남한으로 데려와서 재결합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이순형 외 2007, 2009).

2006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입국현황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통계는 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단독으로 남한 입국한 후 가족 구성원과 재결합하거나, 남한에서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한 내에서의 원가족 재결합의 증가경향은 먼저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잔류 가족을 입국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다(윤여상 2001). 이금순과 동료들(2003)의 연구에 의하면, 남한에 온 후 가족이 재결합하는 경우가 동시에 가족구성원들이 입국한 경우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착금의 일부를 사례비로 받고 잔여가족의 남한 입국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브로커와 알선단체의 등장과 활동이 가족 단위의 입국자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영희 외, 2008).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가족 단위의 남한 정착이 증가할 것이고, 사회적 연계망의 형성으로 연속적인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비롯한 형제·자매, 부모 등 재결합하는 가족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부모가 먼저 남한에 정착한 후 남아 있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윤인진 외 2007; 윤인진 2009; 이금순 외 2003; 이순형 외 2007, 2009)는 연구 자료와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있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진미정 외, 2009)이 일치

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의 유형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모가 먼저 남한에 정착한 후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의 재결합 가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다룬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 간의 괴리와 갈등이 가장 많은 가족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이고, 서로 다른 가족규범으로 인해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은 재결합 가족으로 나타났다(안연진, 2002). 그러나 연쇄이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으로서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까지 연구된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옥자와 김현경(2007)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가족 해체와 재통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은 강한 결속력으로 가족 구성원과의 분리와 재결합의 경험을 극복하면서 미래의 삶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응집력에 기초한 상호 지지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가족 내의 문화를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재통합되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자녀와 부모가 재결합한 가족의 경험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다.

진미정과 동료 연구자들(2009)은 20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실무자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통해 사회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의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이들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 친척과 브로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 와서는 혼인으로 가족을 이루거나 잔류가족들과 재결합을 하거나 또는 임대 아파트 단지 내의 인맥, 탈북인 단체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새로이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인 가족 구성원이 남한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은 북한에 있는 잔류가족을 지원하거나 브로커를 통하여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도 재결합 가족에 초점을 두지는 않은 한계를 보인다.

이순형과 동료들(2009)은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하여 양적·질적 방법을 모두 활용한 통합적인 방법으로 ‘가족해체와 재구성’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가족 분리와 해체를 중심으로 가족이 어떻게 다양한 유형으로 재구성되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난민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재구성 과정과 그로 인한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따른 특성들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한 이주 후 나타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각각의 가족 유형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이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남한에서의 적응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이 남한 내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들도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종 선행연구들의 하부영역에서 가족이산이나 잔류가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자녀와 재결합한 가족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고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의 증가에 따른 변화

가 현재 남한 사회나 혹은 통일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이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국외 선행 연구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닌 서구에서도 이주에 따른 가족 분리 및 해체와 가족 재결합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 이민의 흐름과 함께 최근에서야 발전되었다.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세계화 현상은 국제적 인구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형태에도 변화를 주었다. 이주민은 출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확대가족이나 핵가족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Pottinger 2005). 대체로 남편이 먼저 이주한 후에 아내,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오는 ‘순차적인 방식(stepwise fashion)’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어머니 혹은 주 양육자가 먼저 이주를 하는 경우, 자녀들은 할머니나 고모, 이모와 같은 확대가족 구성원들이 돌봐주게 된다(Baptise, 1993; Suarez-Orozco et al., 2002). 이주민 가족의 경제적인 여건과 이주하게 될 나라의 이민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재결합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Baptise 1993; Suarez-Orozco et al. 2002).

부모와 떨어져 본국에 남아있는 이주민 가족의 자녀들은 신체적·정서적 위험에 처해진다. 부모와의 이별을 경험한 이주민 가족의 자녀는 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의 유무와 상관없이 외로움, 분노, 슬픔, 버림받은 것에 대한 서러운 감정 등의 복합적인 정서를 보고하고 있다(Huyck & Fields 2005). 부모와 떨어져 본국에 있는 이주민의 자녀는 우울증, 자살 충동, 낮은 자존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저조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Jones et al. 2004; Pottinger et al. 2008).

더 나아가 이주과정에서 부모가 죽거나 이혼 혹은 재혼을 한 경우는 자녀들의 안녕(well-being)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mith et al. 2004; Pottinger 2005). 재결합 가족의 자녀에 대한 Smith와 동료들의 회고적(retrospective) 연구(2004)는 장기간의 분리와 계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존재는 연쇄이주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주민 가족의 구성원들은 이주 이전의 가족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그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et al. 2004). 그리고 가족 이외의 다른 사회적 연계망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정착지에서 ‘주변적’ 존재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된다.

Haines와 동료들(1981)은 이주 난민가족의 적응과정에서 두 가지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보고했다. 부모와 함께 이주한 자녀들이 정착한 후 부모보다 빨리 적응하고 동화하여 발생하는 ‘세대 간의 분리’와 가장인 남편이 취업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부부 간의 갈등관계로 인한 ‘부부 사이의 분리’가 발생한다. 특히 새로운 사회에서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가족의 갈등은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세대가 주류문화에 동화되는 수준이 빠르고 높아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Baptise 1993; Merali 2002). 즉, 이주민의 자녀들은 부모들보다 새로운 정착지에 빠르게 적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사회문화적 적응도의 차이는 자녀들과 거리감을 생기게 한다 (Baptise 1993).

또한, 이주로 인한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복잡함을 야기한다고 종종 보고되는데, 부모가 장시간 분리되었던 경우는 가족체계에 다시 영입되는 것이 어려워진다(Rousseau et al. 2004; Suarez-Orozco et al. 2002). 먼저 이주함으로써 떨어져 있던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기대하는데,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녀들은 이주과정에서 부모와 다시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 양립감정을 가지기도

한다(Sciarra 1999). 반면, 재결합한 후에 부모들은 다시 만나게 된 자녀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부모의 이러한 권위의 재정립은 부모의 죄의식에 의해 일치하지 않는 양육 방식이나 자녀가 맘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overindulgence)으로 나타나기도 한다(Rousseau et al. 2004).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녀들은 재결합한 부모에 대한 감정적 회피를 보임으로써 애착에 대한 어려움이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우울증적인 증세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경향은 다수의 연구가 치료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이주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Suarez-Orozco et al. 2002). 대부분의 임상적 문헌에서 가족 분리에 대한 병리적 반응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대상들이 대부분 문제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연구 결과들과 달리, 자메이카 이주민의 가족 분리와 재결합 연구의 결과(Pottinger 2005)에서는 다수의 어머니들은 우울 증세를 보였지만, 부모와 분리되었던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지 않았던 아동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irsky의 구소련에서 서구사회로 이주해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997)는 이민자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이주민 청소년들의 적응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이주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져 있었던 자녀들이 부모와의 분리로 인해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부모와 재결합한 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쿠바 난민여성을 대상으로 회고적 연구를 실시한 Rodriguez-Nogues(1983)는 그 여성들의 아동기에 부모와 분리되어 있다가, 부모가 먼저 정착한 미국으로 이주하여 재결합하는 경험을 기술

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부모와 재결합은 했지만, 지속되는 정서적인 분리와 더불어 언어와 문화의 이질성이 연구 대상자들의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보고하여 생소한 문화권에서 적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Smith와 동료들(2004)의 연구는 성공적 가족 재결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있던 기간, 자녀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의 존재, 부모와의 재결합을 위해 헤어진 대리 양육자와의 친밀도를 제시하였다. 부모와 장기간 분리되어 있었던 아동은 재결합한 후에도 애착뿐만 아니라 우울증세, 낮은 자존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가족이 재결합할 때 그 자녀의 나이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이주한 경우는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적응이 수월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결합 가족의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분리가 장기화될 때 한부모 가정은 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새로이 생겨난 복합가족의 구성원들은 그 자녀에게 낮은 존재로 다가오게 된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거리감을 두게 되며 가족의 역할과 충성심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이렇듯 이주민 자녀의 가족 재결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 장기간의 분리가 재결합한 후에도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아직도 대부분이다. 그러나 점차 재결합한 가족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어 부모와의 분리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이주한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 성공적인 적응이었지만, 최근에는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문화적 역량을 지닌 서비스 전달과 정책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Baptise 1993; Cornile & Brotherton 1993; Sporakowski 1993).

다양한 이주민과 난민 가족의 재결합을 연구한 국외 문헌들을 고찰해 본 결과, 가족 분리에 의해 자녀들은 부정적인 영향에 받는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로부터의 병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이주민에게 가족이란 존재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문화로부터 이주해 온 자녀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이주민 자녀들의 가족 재결합 경험을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Ⅲ.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탈북을 선택한 ‘도전(challenge)’으로 수용하며 상실과 위기를 넘어 성공적인 ‘남한 정착’과 ‘가족 재결합’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본 연구는 탈북이라는 역경을 넘어 분리되어 있던 자녀와 부모가 재결합한 후 남한에 정착하여 가족으로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신념체계(believe systems)’,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s)’, ‘의사소통과정(communication/problem solving)’을 포함한 레질리언스(resilience)²⁾ 관점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이 당면하게 되는 도전과제를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점 관점을 핵심으로 한 레질리언스 관점이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한 생태체계 관점과 가족은 변화하며 성장한다는 발달론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기 때문이다. 레질리언스 관점은 가족 구성원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강점을 찾고 이를 가족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가족을 다양한 사회체계와 연결되어 지속적인 상호작

2) 레질리언스(resilience)는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으로, 역경에서 회복하여 더욱 힘을 얻고 자원이 풍부해져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여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의미한다(Walsh, 1998).

용을 하는 하나의 체계로 보며, 확대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족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하고 변화, 발전해 온 결과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적응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뜻한다(Walsh, 1998).

레질리언스 관점은 가족의 잠재적인 회복과 성장을 확신하고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가족의 부적응에 초점을 맞춘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재결합 가족이 가진 강점으로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여 가족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동반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족보다 더 복잡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재결합 가족의 어려움과 레질리언스를 잘 이해하여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신념 체계의 변화

1) 가족 재결합과 남한 정착에 대한 의미 부여: 가족의 협력과 결속력 강화

가족 재결합과 남한 정착을 ‘도전(challenge)’으로 수용하고 그로 인한 당면과제들을 인생에서의 자연스러운 역경으로 받아들여, 가족으로서 협력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탈북에서부터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역경과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Walsh, 1998). 가족 분리 이전 과거의 역경에 잘 대처하여 성장했던 때를 상기하고, 가족 재결합과 남한 정착으로 인한 어려움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가족의 재결합으로 인한 변화와 갈등을 수용하며 가족 결속력을 강화하여 남한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처하면서 가족으로서 협력을 유도하도록 한다.

2) 긍정적인 전망: 가족 재결합에 대한 현실적 기대 추구

가족 구성원들이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는 것은 가족의 장점과 잠재력을 강조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은 변화될 수 없는 것에 대해 수용하고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변화에 참여하면서 노력하는 것이다(Walsh, 1998).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결합을 위한 자신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기대하지만 자녀들은 이주과정에서 또 다른 상실을 경험하여 가족 재결합에 대해 양립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부모가 재혼한 것을 몰랐던 경우, 자녀들은 놀라움과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충성심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자녀가 남한 입국하여 재결합한 후 새롭게 형성된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큰 문제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재결합으로 인한 갈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한편, 가족 전체로서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대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원에서부터 부모와의 재결합을 기다리는 자녀에게 가족 재결합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영성: 종교기관 연결 및 활용

그동안 정신건강에서 간과되어왔던 종교나 영성이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고 영적,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지지체계로 작용하게 된다(Walsh, 1998). 영적인 신앙심이 남한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신념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면 종교 기관과의 연결하여 종교 의식과 행사 등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의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에서부터 남한에 정착하는 동안,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의 도움을 많이 받아 자신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준 은인이 믿는 신을 의리상 믿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 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착하는 과정에서 종교로 인한 갈등과 동요를 겪게 되면서 개신교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병호 외, 2006).

2. 조직유형

1) 융통성 강화: 가족 규칙의 재정립과 역할의 재조정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예견하는 요인으로 적응성, 융통성, 변화능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융통성은 도전에 대해 재조직하고 적응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반응이다(Walsh, 1998).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이주한 경우는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적응이 수월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결합 가족의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응 속도가 빠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안연진, 2002)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완화를 위해 가족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분리가 장기화될 때 한부모 가정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계부 및 계형제·자매들은 자녀에게 낯선 존재로 다가오게 되므로 가족 구성원 간의 융통성 있는 역할의 재조정을 통해서 가족을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2) 연결성 향상: 부모-자녀관계의 회복과 가족의 응집력 향상

‘연결성(Connectness)’이란 가족 구성원이 자율적이며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연합할 수 있으며 상호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Walsh, 1998).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게 있어서 적응은 ‘탈북이란 삶의 사건’으로 인한 가족 분리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단절되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견고해지면 가족으로서의 남한생활의 적응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가정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동질집단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나 가족상담 혹은 개별상담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분리로 인한 자녀의 정신적 상처나 부모의 죄책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가족의 응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

3) 사회적 자원 동원: 지지집단 형성과 사회적 관계망 활용

남한사회 정착과 가족 재결합이라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지지와 가족 외부의 자원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들은 어떤 종류든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삶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Walsh, 1998).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의 지지집단(Support Group)의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이순형 외, 2006). 지지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면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먼저 성공적으로 적응한 북한이탈주민은 집단 내의 역할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으며, 멘토(mentor)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사회적 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3. 의사소통 과정의 강화

1) 개방적인 정서 표현: 부모-자녀 대화 증진과 상호 감정이입 능력의 향상

통제적이며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살다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나 개방적인 정서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또한 장기간의 가족분리를 경험한 후 부모-자녀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상호 감정이입이 가능한 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경우 부부 간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갈등을 잘 해결할 때 전반적인 남한 적응의 정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이금순, 2006).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가족 간의 정기적인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의 자녀들의 경우, 장기간의 가족 분리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 처했던 다른 이들과 집단 상담이나 캠프 활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 등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협력적 문제 해결: 세대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해결의 대안 탐색

남한에 정착한 후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남한생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적응속도의 차이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갈등이 야기된다.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보다 남한 문화에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가족 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김영희, 2006; 조정아 외, 2006). 그러므로 가족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남북한의 서로 다른 문화 비교와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에게는 남한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을 수용하고 자녀교육과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갈등 완화를 위한 대안 탐색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같이 협력적으로 상호의견을 수용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협력적 문제 해결은 공유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대한 도전의 준비를 가능케 한다.

이제까지 언급된 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의 이해와 지원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으로 본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 지원

레질리언스 본질		핵심 과정	필요한 지원
신념 체계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 가족 재결합과 남한 정착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부여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계와 가족 결속력 강화를 돕는 서비스 지원: 가족 재결합 준비 ■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가족의 재안정화 지원: 가족기능의 향상 ■ 종교 기관과의 연결 및 종교 관련 서비스의 활용
	긍정적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재결합의 대한 현실적 기대와 남한 정착에 대한 희망 ■ 남한 정착과 가족 재결합의 적응을 위한 가족 구조의 재구성 	
	영성	■ 종교 활동을 통한 치유와 가족 응집력 향상	
조직 유형	융통성	■ 가족 규칙의 재정립과 융통성 있는 가족관계 재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의 가족문화와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 ■ 부모-자녀의 관계 회복 및 향상을 위한 정신 건강서비스 지원: 개인 및 가족상담
	연결성	■ 상호 지지와 협력을 위한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 유지	
	사회적·경제적 자원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집단의 형성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의 활용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능력 개발과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들과 이들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 ■ 취업, 금전관리 등 경제적 안정과 자본주의 경제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의사 소통 과정	개방적인 정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의 상호 감정 이입 ■ 부모-자녀 간의 대화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 훈련과 강화 ■ 남·북한의 문화 비교와 이해를 위한 교육 ■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협력적 문제 해결	■ 문화적 차이와 세대 차이에서 생긴 갈등 해결의 대안 탐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남한 정착’이라는 ‘도전’을 수용하고 잔류가족과 재결합을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결합 가족은 가족의 구조와 역할을 재조정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신뢰를 기반으로 남한 적응이란 도전과제에 대처하며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게 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을 적용한다면, 가족 내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적인 대안 탐색을 통해 도전과제에 대처하며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게 되면서 레질리언스를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것이다.

IV. 결 론

국제이주를 경험하는 이민자, 이주 노동자나 난민 자녀의 대부분은 부모와 이별하여 시·공간적인 가족분리를 경험했다가, 재결합하게 된다. 가족의 재결합은 해체된 가족의 재구성으로 새로이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가족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최근 남한에 먼저 정착한 가족 구성원이 잔류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지원하여 입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현황이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살펴본 레질리언스 관점을 적용한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이해와 인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거시적으로는 그 가족들이 남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되어 정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레질리언스 관점을 적용한 지원방안으로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사회적응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부터 부모와 재결합할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족 재결합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재결합 가족은 장기간의 분리 후 재결합에 환상을 가지고 별다른 준비 없이 같이 살게 되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면서는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정신보건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기능 및 가족복지 서비스사업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외부로부터 갈등의 완화를 도와주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이 남한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 추세인데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보는 편견이 만연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을 제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인정과 관심,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결합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통계자료 확보와 함께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가 근거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입국 후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새로이 가족을 형성하거나 잔류 가족

과 재결합한 경우, 이런 가족들은 새로운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재적응을 위해 가족생활주기에 맞는 단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통계 자료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재결합 가족의 성공적 사례를 연구하여 발표함으로써 먼저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연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정책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통일부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³⁾의 교육지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민·관 단체 및 기관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을 동일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안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하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로부터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므로 남한 주민들과 잦은 교류를 통해 남한 주민들이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간 분리되었던 가족의 재결합은 가족생활주기에 큰 전환을 주는 사건으로 가족의 재조직화와 결속력 강화가 요구되는데 이

3)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로의 안정된 편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인력양성이 대두되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출범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2009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현재 87명 기배치, 추후 100명 배치 예정이다(통일부, www.unikorea.go.kr/ 검색일, 11/04/14).

때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재결합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가족은 구성원들의 노력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이란 것을 인식하게끔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특별히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가족 탄력성 증진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등과 교육을 활용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들에게 레질리언스 관점을 수용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이들은 보다 순조롭게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수. 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제9집, 102-117.
- 김영희. 2006.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유형과 가족적응의 어려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통일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미석 · 이종남. 1999. “탈북가족의 남한사회적응 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17,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3-73.
- 박영희 · 이기영 · 강경미 · 김형태 · 이민영 · 김현경 · 김선화. 2008. 『북한이탈주민 가족복원』. 그리스도대학교 남북통합지원센터 편. 나눔의 집.
- 안연진. 200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여상. 2001. “남북화해 · 협력시대 북한이탈주민의 역할과 사회적응.” 『한국동북아 논총』 21, 95-115.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윤인진. 2005.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사회적응: 강점 관점의 접근.”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자료집』, 21-26.
- 윤인진. 200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추계한국사회학회 자료집』, 81-104.
- 윤인진 · 박영희 · 윤여상 · 장혜경 · 임인숙. 2007.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2(2), 89-108
- 윤인진. 2009. 『북한이탈주민－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 정책－』.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80집, 집문당
- 이금순 · 강신창 · 김병로 · 김수암 · 안혜영 · 오승렬 · 윤여상 · 이우영 · 임순희 · 최의철. 2003. “북한 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

일연구원 합동연구과제 보고서.].

이금순. 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연구』 45(11), 191-234.

이기영. 1999. “탈북자 가족구성원의 갈등에 관한 문헌적 고찰.”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 6, 389-404.

이기영 · 성향숙. 2001. “탈북자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47, 243-271.

이순형 · 조수철 · 김창대 · 진미정. 2007.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3.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순형 · 김창대 · 진미정. 2009.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서울대학교 통일학신서』 5,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옥자 · 김현경. 2007. “새터민 가족의 재통합을 위한 분투노력－새터민 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65-387.

이민영. 2004.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장혜경 · 김영란. 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장혜경. 2008. 『새터민 가족문제와 정책방향』. 한반도 평화연구원.

전우택 · 홍창영 · 엄진섭. 2003.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 조사.” 『통일연구』 7(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55- 208.

정병호 · 전우택 · 정진경. 2006.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출판부.

진미정 · 이순형. 2007. “가족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5(5), 63-74.

진미정 · 이순형 · 김창대. 2009. 『탈북민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학지사.

- 조정아 · 임순희 · 정진경.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여성개발원, 통일연구원.
- 한인영 · 이소래. 2002.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지』 10, 121-142.
- Baptise, D. A. 1993. “Immigrant Families, Adolescents and Acculturation: Insights for Therapists.” *Marriage & Family Review* 19(3), 341-363.
- Cornile, T. & Brotherton, W. D. 1993. “Applying the Developmental Family Therapy Model to Issues of Migrating Families.” *Marriage & Family Review*, 19(3), 325-340.
- Haines, D., Rutherford, D. & Thomas, P. 1981. “Family and Community among Vietnamese Refugees,” *Sociological Inquiry*, 64(3), 281-306.
- Huyck, E. E. & Fields, R. 2005. “Impact of Resettlement on Refugee Childre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5(1). 246-254.
- Jones, A., Sharpe, J., & Sogren, M. 2004. “Children’s Experience of Separation from Parents as a Consequence of Migration.” *Caribbean Journal of Social Work* 3, 89-109.
- Merali, N. 2002. “Perceived versus Actual Parental-adolescent Assimilation Disparity among Hispanic Refugee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24, 57-68.
- Mirsky, L., 1997.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Immigrants from Adolescents: Culture-specific factors in the case of immigrant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 221-230.
- Orellana, M. F., Thorne, B., Chee, A. & Lam, W. E. 2001.

- “Transnational Childhoods: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Process of Family Migration.” *Social Problems*, 48(4), 572-591.
- Pottinger, A. M. 2005. “Children’s Experience of Loss by Parental Migration in Inner City Jamaic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2), 485-496.
- Pottinger, A. M, Stair, A. G., & Brown, S. W. 2008. “A Counseling Framework for Caribbean Children and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Migratory Separation and Re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unseling* 30, 12-24.
- Rodriguez-Nogues, L. 1983. *Psychological Effects of Premature Separation from Parents in Cuban Refugee Girls: A Retrospective Study*.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of Education. Boston University.
- Rousseau, C. C, Rufagari, M. C, Bagilishya, D. & Measham, T. 2004. “Remaking Family Life: Strategies for Re-establishing Continuity among Congolese refugee during the Family Reunification Process.” *Social Science & Medicine* 59(5), 1095-1108
- Sciarra, D. T. 1999. “Intrafamilial Separation in the Immigrant Family: Implications for Cross-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7(18), 31-41.
- Smith, A., Lalonde, R. N. & Johnson, S. 2004. “Seri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trospective Analysis of Expediences of the Children of Caribbean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0(2), 107-122
- Sporakowski, M. J. 1993. “Immigrant and Migrant Families.” *Marriage & Family Review*, 19(3), 299-310.
- Suarez-Orozco, C., Todorova, L.G. & Louie, J. 2002. “Making Up For Lost Time: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Among Immigrant Families.” *Family Process* 41(4), 625-643
Walsh, Froma.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The Guilford Press.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http://www.dongposarang.or.kr/>(검색일: 2011/04/14)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검색일: 2011/04/14)

Abstract

Supportive Strategies for Reunite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 Focusing on Resilience –

Yooju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increased since the mid-1990s, with more than 20,000 now living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has also increased since the 2000s. This has led to active research of the situation. Earlier studies found that reunite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had resettled in South Korea in greater numbers than defectors who joined other family members who had arrived earlier. It is difficult to know the exact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in South Korea due to the lack of statistics on them. However, it can be assumed that the number of reunite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would increase consistently with the support from family members who are already in South Korea.

Due to the rapid growth i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families living in South Korea, strategic support plans and services for them have been discussed. However, supportive services for reunite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are rare. Therefore, supportive strategies for reunite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are reviewed here to help them adapt to South Korea, with a focus on resilience. The areas of support include believe systems, organizational patterns, and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With a resilience perspective,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accepted ‘resettlement in South Korea’ as a selective

challenge and reunited with family members from North Korea or China. The family members adjust to the new structure and roles of the family after reunification and to a different culture. They also grow together as a family with a positive perspective as well as trust and hope while they resolve their conflicts and difficulties together. If supportive strategies based on resilience for reunite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were implemented, these families would strengthen their resilience and improve their family relationship and resettlement experience in South Korea.

Key Words: Reunite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Resilience Perspective, Adaptation and Resettlement
in South Korea

투 고 일 : 2011년 04월 15일

심 사 일 : 2011년 05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5월 21일